

광주·전남 팍팍한 삶에 온정도 얼어붙나

공동모금회 기부액 작년보다 줄어 불황 속 기업 기부액도 크게 감소

나눔정신 갈수록 퇴색

극심한 경기침체에 국민의 마음도 얼어붙었을까. 기록적인 폭설과 추위를 녹일 온정의 손길이 예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불황에 소액 기부자인 시민들의 온정이 크게 줄어드는가 하면, 사회단체와 공공기관, 기업의 기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17일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희망 2015 나눔캠페인'을 시작한 지난달 20일 이후 현재까지 모금액은 9억 8839만원으로, 지난 2013년(11억7777만원)에 견줘 10.78%(1억1938만원), 지난해 같은 기간(10억4364만원)에 비해 5.29%(5525만원)이 감소했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금액은 지역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저소득층의 난방비와 의료비, 생계비 등에 쓰인다.

특히 광주의 경우 소액 기부자인 시민

온정이 크게 줄어들었고 전남은 기업들의 기부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모금액 6억3328만 원 중 개인 기부금은 31.9%인 2억214만 원에 머물렀다. 지난 2013년과 지난해 개인 기부금 3억1996만 원(개인기부율 71.2%)과 2억 8167만 원(63.8%)에 비해 각각 39.3%P와 31.9%P 감소한 수치다.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을 정도로 지역민들이 경기 침체의 타격과 가계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

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남의 경우 기업들의 기부 금액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극심한 불황 속에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얼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기업 기부금의 경우 전체 모금액의 27%인 2억694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3년(3억7258만원·기업기부율 35%)과 지난해(3억663만원· 30%)보다 각각 8%P, 5%P 줄어든 금액이다.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예년에 비해 줄어든 온정의 손길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모금활동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등 잇따른 대형사고로 어수선해지고 냉랭해진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장기 불황인데다, 각종 대형사고까지 잇따라 타격이 더 커졌다"며 "주변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듯하다"면서 "내년 1월 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시민들과 단체 등의 기부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모금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모두 103억4200만 원(광주 33억9200만 원, 전남 69억5000만 원)을 모금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는 지난해 모금 목표액 97억 원보다 6억4200만 원 올린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그래도 어김없는 '얼굴없는 천사들'

케익 68개 보내고...매달 10만원 기부하는 키다리아저씨

장기불황 속에 연말 온정의 손길이 예전 같지 않지만 겨울 한파를 녹이는 얼굴 없는 기부천사들이 잇따라 행복 바이러스를 퍼트리면서 세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들의 선행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직 우리 사회의 온정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7일 광주시 북구청 복지정책과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에서 제과점을 운영한다는 이 남성은 오는 22일 크리스마스 케익 68개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200만 원 상당.

담당 공무원이 기부자의 이름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다만 이 익명의 천사는 자신이 북구 출신이라는 것만 밝혔다.

구는 이날 소년소녀가장(4세대)·가정위탁가정(64세대) 등 68세대에 케익을 전달할 예정이다.

북구 A동엔 매달 10만 원씩 기부하는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

이 남성은 지난 2012년 A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나도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불우 청소년 한 명을 돕고 싶다"는 뜻을 밝힌 뒤 올해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남성의 직업이 교도관일 것이라는 추측만 무성할 뿐 나이·이름·얼굴 등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A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이 익명의 천사의 선행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는데, 자신의 신분이 밝혀질 경우 기부행위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혀 만남을 포기했다"며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시기에 이같이 따뜻한 온정을 보내 준 익명의 기부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다문화 학생들의 모의재판. 광주지방법원은 17일 광주 광산구 새날학교에서 '고려인 마을, 새날학교 방문 법문화 마당' 행사를 가졌다. 다문화 학생들이 판·검사·변호인 역할을 맡아 모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출신 3명 '경찰의 별' 경무관 승진

박석일·김남현·박생수

박석일(51) 광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이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으로 승진한다.

경찰청은 17일 박 청문감사담당관 등 총경 22명을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 발표했다. 경무관은 10만5000명이 넘는 전체 경찰의 0.04%(47석)에 불과한 최상위층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박석일 광주청 청문감사담당관이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됐다. 해남 출신인 박 감사담당관은 순천고와 경찰대(2기)를 졸업한 뒤 경찰에 입문, 지난 2007년 총경으로 승진했고 해남서장, 고흥서장, 광주 북부서장, 청문감사담당관 등을 지냈다.

또 목포 출신 김남현(51) 서울 광진서장, 진도 출신인 박생수(52) 서울청 교통안전과장도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됐다. 김 서장은 목포 출신으로 광주 금호고·경찰대(2기)를 나와 2007년 총경 승진 뒤 강진서장, 캐나다 밴쿠버 외사기획재관 등을 역임했다.

진도 출신인 박생수 서울청 교통안전과장은 광주 인성고, 경찰대(2기)를 졸업하고 2007년 총경에 이름을 올렸고 장흥서장, 경찰청 분청 교통기획관리관 등을 지냈다.

이외 경찰청 분청에서 박기호 정보 2과장, 박명준 사이버범죄대응과장, 이상로 교통안전과장, 김교태 재정담당관, 김현기 강력범죄수사과장, 하상구 수사기획과장, 유진형 감찰담당관, 송민현 인사담당관 등 8명이 승진자로 내정됐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판사의 일침 "부패한 지방의원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지법, 사익 추구 엄단 전 전남도의회 법정 구속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폐지, 정당공천 배제 등 지방자치제 근간을 변경하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데는 부패한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회의 행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커녕, '지역 토호(土豪)화'되면서 사익을 추구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부패한 지방의회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법정

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 10 단독 김승휘 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60)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82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0년 5월 한 자치단체장에게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해 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알고 지내는 가로등 설치업자 정모씨로부터 모두 8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이 자치단체장과

친분을 내세워 특정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주려 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충분히 수증할 만하다"면서 "김 전 의장의 범행은 5년 도의원이자 의장 지위까지 차지하고 있으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행에 옮기려한 점에서 부패한 지방의원의 전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의장은 청탁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마저 엿보인다"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실행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솔 생활비 떨어지자 차량탈이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탈이에 나선 10대 3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17일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모(17)군 등 3명은 지난 10월 30일 새벽 2시 광주시 동구 학동 S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양모(58)씨의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현금 4만 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차량 탈의.

○...이들은 일주일 전 가출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나선데, 경찰에서 "그간 대학병원 대기실에서 숙식을 해결해왔다"고 진술.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전남도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 드립니다

당사는 1969년 5월 창립 이후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자동차 제동 및 조향부품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당사에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가 채용담당 신입사원의 실수로 모집요강에 전라도 출신을 배제하는 표현을 하여 지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광주, 전남도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당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에 파견 근무할 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작금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차별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 첫째, 고용정책기본법 등 지역차별금지 조항을 엄격히 준수한다.
- 둘째, 인력채용은 인력 파견사를 배제하고 당사에서 직접 채용한다.
- 셋째, 입사지원서에 본적지 기재 란을 삭제한다.

또한 이번 지역차별 논란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지역차별에 대한 광주, 전남도민들의 오해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당사는 앞으로 광주, 전남지역 젊은 인재들의 등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 할 것이며, 보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모범기업으로 거듭나 사회적 책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공업주식회사